

1. 독도란 무엇인가 – 강지이야기



독도의 강지 생김새

1. 독도란 무엇인가 – 강치이야기

1. 특징

크기: 수컷은 몸길이 2.5m, 암컷은 1.8m 정도 자랐으며, 몸무게는 수컷이 300kg, 암컷이 150kg 정도였습니다.

외모: 암컷은 짧고 굵은 털을 가지고 있었고, 수컷은 목에 갈색 갈기가 있었습니다.

습성: 바다사자는 육식 동물이며, 주로 물고기, 오징어, 새를 먹었습니다. 땅에서 등지를 짓고 무리를 지어 생활했습니다.

2. 서식지

독도 강치는 한국의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와 일본 열도에 서식했습니다

1. 독도란 무엇인가 – 강치이야기

우리 땅 독도에는 1900년대 초만 해도 강치라고 불리는 바다사자 수만 마리가 무리 지어 살았습니다. 1904년, 일본의 한 어부는 큰돈을 벌 생각으로 우리 땅인 독도에서 강치를 잡게 허락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자국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해 강치잡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 어부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강치를 잡았고, 결국 독도의 강치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 독도란 무엇인가 – 강치이야기

강치 : 독도에 살던 바다사자로, 지금은 독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강치가 독도에서 사라진 까닭 : 우리 땅이었던 독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고, 일본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강치를 포획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

멸종: 1994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절멸종(EX)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복원 가능성: 현재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독도를 둘러싼 문제

독도는 대한민국 동해에 위치한 두 개의 섬으로,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과제)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 독도 영유권 주장, 죽도의 날 제정, 왜곡된 교과서 내용 등

국제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일부 국가들의 혼란 및 무관심

지속적인 대응 노력의 중요성: 외교적 노력, 국내 홍보 강화, 학술 연구 활성화

3. 독도에 관한 일본측 주장

역사적 근거:

조선시대의 지도나 문헌에 독도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음

1877년 일본 태정관 지시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군 관할구역에 독도 포함되지 않음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여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발표

고대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 고지키, 니혼서키 등 일본 고대 문헌에 '다케시마'라는 지명 등장

조선시대 지도에도 '다케시마' 표기: 이덕형의 지도(1861년) 등 일부 조선 지도에 '다케시마' 표기

근대 이후 일본의 공식 입장: 1877년 명령, 1900년 시마네현 편입, 1952년 평화 선무시 등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